

2) 올미골(兀尾谷)

예천 임씨(醴泉林氏)의 입향조(入鄕祖)인 긍(兢)의 묘소(墓所)가 있는 곳으로, 산세(山勢)의 끝봉(峯)이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라 하여 올미골(兀尾谷)이라 부른다.

3. 가구 분포

총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두산(拘頭山)

산(山)의 형국이 ‘앉아 있는 개의 머리와 흡사하다’ 하여 구두산(拘頭山)이라 한다.

2) 독묘산(獨墓山)

산(山)봉우리가 묘(墓)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3) 성황당(城隍堂)

음력 정월 보름날 자정(子正)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장사곡(長沙谷)

마을 앞 남대천(南大川) 변에 2km나 되는 백사장(白沙場) 골짜기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21절 호월1리(湖月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고산성(古山城)(城底洞)이 바라보이고, 서쪽은 마을 뒷산을 경계하여 호월3리(湖月三里)가 있으며, 남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가원동(佳原洞)이 있고, 높은 범대미산이

있다. 북쪽은 뒷산인 고지박산(山)이 있고 주수골이 있는데, 아흔아홉의 긴 계곡이며, 산 능선을 경계하여 명도2리(明道二里)와 접한다.

2. 마을의 역사

1) 무월동(舞月洞)

1396년(공민왕 19)에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개척하였다고 한다.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倭兵)들의 울진현(蔚珍縣:古山城) 공격을 막기 위하여 마을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판을 벌여 왜군의 시선을 돌린 후 고산성(古山城)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이 북문(北門)을 통하여 왜군을 섬멸하였다고 전한다. 또 마을 앞 ‘지당(池塘)에 비치는 달이 물결 속에서 춤을 추는 듯하다’ 하여 무월(舞月)이라 하였다고도 전한다.

1618년(광해군 10)에 알성무과(謁聖武科)에 장원(壯元)한 장대룡(張大龍) 장군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마을이 쇠퇴하던 중 1724년(경종 4)에 장만년(張萬年)이 입주(入住)하여 울진 장씨 집성촌을 이루었다. 지당(池塘)은 매몰(埋沒)되어 농지로 변했으며, 이곳을 앞들이라 부른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다.

2) 뱃고개(瓦峴)

무월동(舞月洞)의 서쪽에 연이어 있는 마을로 옛날 웅기와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하여 와고개 또는 뱃고개라 부르며, 1960년대까지 웅기를 구웠다.

3) 주수골(住水谷)

무월동(舞月洞)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계곡(溪谷)이 아흔아홉 골이나 된다.

3. 가구 분포

총 6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주를 이루며 담양 전씨(潭陽田氏),新安 주씨(新安朱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고조봉(高助峰)

마을 동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강풍(强風)을 막아주고, 재앙(災殃)을 막아준다고 여겨 고조봉(高助峰)이라고 부른다.

2) 월계사지(月溪祠社)

1856년(철종 7)에 창건(創建)한 월계사(月溪祠)에 올진 장씨(蔚珍張氏) 관시조(貫始祖)인 매계(梅溪) 말익(末翼) 선생과 8세손인 판서(判書) 양수(良守)의 양현(兩賢)을 배향(配享)하였는데, 1868년(고종 5)에 철폐되고 사지(祠社)가 있다. 그 후 1924년에 가원동(佳原洞)에 이설(移設)하였다.

3) 일우정(一愚亭)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에 있는 정자이며, 1901년 장주신이 건립하였다. 일우정은 남대천변 경사지에 서쪽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반 칸 규모의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평면은 중앙에 1칸 마루를 두고, 좌우에 1칸 온돌방을 들인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으로 방과 마루의 전면에 뒷마루를 두었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일우정기(一愚亭記)」가 전한다.

4) 전동산(全銅山)

주변의 흙 색깔이 ‘누른 구리 같다’ 하여 전동산(全銅山)이라 불렀다고 전하며, 이 흙으로 와현동(瓦峴洞)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전한다.

제22절 호월2리(湖月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남대천(南大川)이 흐르며 내(川)의 건너편에 뫼두봉이 바라보이는 ‘높은들(高原洞)’이 있고, 서쪽은 신림리 지역인 삼거리와 정림3리인 올미골과 접해있다. 남쪽은 중첩된 산 너머에 읍남4리인 상토일(上吐日)이 위치하며, 북쪽은 앞내를 건너 호미산(虎尾山) 너머 박금동(拍琴洞)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섰다.

2. 마을의 역사

1) 용저동(龍渚洞)

1579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정수(田正秀)와新安人) 주문식(朱文湜)이 개척